

## 크리에이티브 리뷰

5월의 크리에이티브 리뷰에서는 스페셜 이슈인 〈행복 콘텐츠〉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보고서, 논문을 소개한다. 행복과 웰빙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Creative Books

| 박현아 (KOCCA 미래전략팀 주임연구원) |



###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

일상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창조적 영감의 원천으로서 놀이의 의미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놀이를 통한 창조 과정을 예술, 철학,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탐구한 책이다. 이 책은 미켈란젤로, 바흐, 윌리엄 블레이크, 쇠데브라, 베토벤, 피카소, 브람스 등 역사 속 위대한 예술가들이 남긴 다양한 명연과 사례, 즉흥음악 연주자로서의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로부터의 창조'라는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 시인으로서 전방위적 예술 활동을 펼쳐온 아티스트인 저자는 진정한 창조성의 열쇠가 시공간의 벽을 뛰어넘고, 심지어 자신조차 잊어버린 채 빛나는 영감으로 순간을 포착하는 '즉흥성(improvisation)'에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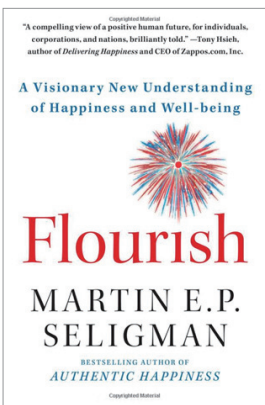
●저자 :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저 / 이상원 역 ●출판사 : 에코의 서재 ●출간일 : 2008.07.10



### 3만 엔 비즈니스,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 철학하는 발명가 후지무라 박사가 제안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액션플랜

오랜 불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책이다. 이 책은 열심히 일해도 결국 자본과 슈퍼리치의 노예가 되고 마는 현실에서 벗어나, 조금만 일하고 더 행복해지는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만 엔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다. 착한 일만 해서 돈을 벌고, 한 달에 이틀만 일해도 충분하며, 남은 시간에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다. 기존의 비즈니스가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면 '3만 엔 비즈니스'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거부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공생하는 신세계를 꿈꾸는 자들의 비즈니스이다.

●저자 : 후지무라 야스유키 저 / 김유익 역 ●출판사 : 북센스 ●출간일 : 2012.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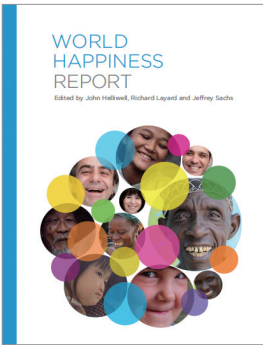
### 번영: 행복과 웰빙의 새로운 이해

####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셀리그만은 이 책에서 그동안 자신과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들인 회복탄력성, 트라우마 이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후 성장, 긍정심리치료, 심장혈관 질병, 암, 일반 심리치료와 약물의 숨기고 싶은 비밀, 대표 강점 찾기, 행복 만들기, 학교와 직장, 군대에서의 긍정교육과 회복탄력성 훈련의 효과 등을 다룬다. 긍정심리학을 통해 순간의 기분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닌 '더 풍족한 행복', '행복의 만개(滿開)'를 꿈꾸는 저자는 긍정심리학의 주제는 행복을 넘어 웰빙이며, 웰빙을 측정하는 최선의 기준은 플로리시이고 긍정심리학의 목표는 플로리시의 증가라고 말한다. 또한 책에서는 플로리시를 위한 새로운 웰빙 이론의 5가지 요소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우리가 '행복의 만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 Martin E. P. Seligman ●출판사 : Atria Books ●출간일 : 2012.02.07

# Creative Reports



## 세계 행복 보고서 2012

### World Happiness Report 2012

2012년 4월, 행복과 웰빙에 대한 UN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컨퍼런스 개최에 따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기준으로서 행복, 그리고 불행의 부재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행복의 상태를 진단하고 행복의 새로운 과학이 어떻게 행복의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고서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은 주로 북유럽국가로 드러났으며, 가장 불행한 국가들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빈곤국가로 나타났다.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의지할 사람의 존재, 직업 안정성과 안정적 가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 UN ●출간일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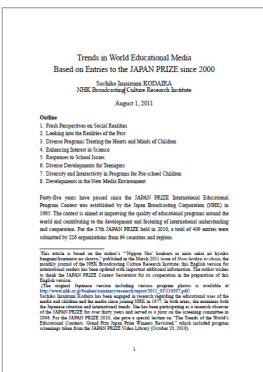


## 2030년 웰빙 보고서

### Well-being in 2030 Aggregate Report

이 보고서는 2011년 3/4월 8개 국가(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를 대상으로 한 계량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30년의 사회적 웰빙을 위한 국민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미래 사회의 웰빙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사회와 공동체, 환경을 꼽고 있다. 개인적 웰빙에 중요한 요소로는 건강, 교육과 고용 중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운 양상을 나타냈으며, 많은 국가에서 연령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 European Commission ●출간일 : 2011.09.20



## 세계 교육콘텐츠 제작트렌드

### Trends in World Educational Media Based on Entries to the JAPAN PRIZE since 2000

일본 방송사 NHK가 1965년 JAPAN PRIZE 국제 교육 프로그램 콘테스트를 시작하지 45년이 지났다. 이 콘테스트는 세계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0년에 개최된 37번째 JAPAN PRIZE에는 64개 국가와 지역의 226개 기관으로부터 409개의 프로그램이 제출되었다. 10년간의 주요 트렌드를 8가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 현실에 대한 신선한 관점, 과거의 상황 들여다보기, 아동의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과학분야의 흥미도 제고, 학교 이슈들에 대한 대응,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발전프로그램들, 미취학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성,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발전프로그램들이다.

●저자 : Sachiko Imaizumi KODAIRA(NHK Broadcast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출간일 : 2011.08.01

# Creative Articles

## 유튜브 밈 현상의 분석

### An Anatomy of a YouTube Meme

2005년에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로 시작한 유튜브는 이제 참여형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유튜브의 중심적인 특성으로 매일 수천 명의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수많은 파생형 비디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밈' 개념을 분석 도구로 이용하여 '모방 비디오(창의적인 파생형 비디오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기있는 비디오)'들에 흔히 나타나는 특성들을 밝혀본다. 이 연구에서 찾아낸 6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평범한 사람, 허술한 남성상, 유머, 단순함, 반복성, 그리고 기발한 내용. 결론에서는 최근 디지털 문화에서 일어나는 '모방하기' 붐을 설명하고 이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 논리와 연결한다.

●저자 : Limor Shifman ●저널명 : New Media and Society ●게재일 : 2011

## 블로깅이 자기노출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 Can Blogging Enhanc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Disclosure?

자기 노출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초한 이 연구는 블로거의 자기노출 변인이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주관적 행복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블로거의 자기노출 변인이 블로거의 사회적 통합, 분당 사회자본, 그리고 브릿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지에 유의미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것이 블로거의 주관적 행복감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블로깅을 통해 쌓은 사회적 자본은 블로거의 사회적 연결, 개인 간 소통, 전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저자 : Hsiu-Chia Ko and Feng-Yang Kuo ●저널명 : CyberPsychology & Behavior ●게재일 : 2009.02

## 페이스북을 통한 행복 증진: 페이스북 친구수와 자기노출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The Facebook Paths to Happiness: Effects of the Number of Facebook Friends and Self-Present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이 연구는 페이스북에서의 친구 수와 자기표현 전략(공정적인 대 정직한)에 기반하여 페이스북이 어떻게 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의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 수는 주관적 행복감과 긍정적인 연관관계가 있지만 이 연관성이 인지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지는 않았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와 인지된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부정적인 곡선적 관계(뒤집어진 U모양)로 나타났다. 자기표현 전략에서는 긍정적인 자기표현이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반면, 정직한 자기표현은 인지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 Junghyun Kim and Jong-Eun Roselyn Lee ●저널명 :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게재일 : 2011.06.23



# Creative Magazines



## 한류 스토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국내외 한류 소식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담은 한류 종합 매거진 '한류 스토리' 창간호를 4월 8일 발간했다. 이 잡지는 세계 각지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한국 문화에 관한 정문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25개국 해외 통신원들과 국내 대학생기자단, 대중문화전문가, 해외한류 커뮤니티 관계자 및 관련분야 연구인력 등을 활용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한국어 열풍! 지구촌 언어를 꿈꾸다', '한류, 살아있네-2013한류, 진화에 멈춘은 없다' 등의 주제로 한류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분석을 담았다.

● 발행처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www.kofice.or.kr](http://www.kofice.or.kr)



## 한국영화

월간 '한국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월 영화산업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을 취재 및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월간지이다. 영화진흥위원회 뉴스, 박스 오피스 월간 흥행시장 분석, 해외 영화산업 분석, 영화계 관계자 인터뷰, 한국영화 제작상황판 등 산업과 밀접한 심층 정보를 제공한다. 4월 2일 발간된 4월호에서는 2013년 영화지원사업을 총정리하고 스페셜 코너로 '한국 독립영화 현황 및 정책 개선 모색', '2012년 영화소비자 조사'를 실었다.

● 발행처 :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 한팩뷰

한팩뷰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을 운영하는 한국공연예술센터(HanPAC)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잡지이다. 무용과 연극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4월호에서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의 공연일정을 소개하고, 연극 <별>의 김관, 정소정씨를 인터뷰한다. 무용계에서 떠오르는 라이징스타를 조명하고, 2013 현대 춤 작가 12인전과 제13회 서울국제즉흥춤 축제, 제34회 서울 연극제를 소개한다.

● 발행처 :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http://www.hanpac.or.kr)